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김세중 연구위원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왔음.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함.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 고독사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고독사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외에 40~50대 중년층의 비중도 상당함¹⁾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임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TF를 설립하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²⁾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³⁾

■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1) 시사상조신문(2016. 3. 12), “2015년 무연고사망자 역대 최고”
 2) 아시아경제(2017. 11. 1), “고독사예방 TF 설립...고독사통계 작업 속도내나”
 3) 연합뉴스(2016. 1. 13), “쓸쓸한 죽음은 그만...고독사 예방에 팔 걷은 지자체”

-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던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독사가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⁴⁾
- 2016년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 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
- 2015년 일본의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60세, 58세로 나타났고, 비중은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가족 및 이웃들과 소통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1〉 일본 고독사 관련 통계

구분	평균 수명	고독사 평균 연령	비중	발견까지의 기간
남성	80세	60세	80%	23일
여성	87세	58세	20%	7일

자료: 日本少額短期保険協会(2016), 孤独死の現状レポートの概要

■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함

-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함
- 아이아루(アイアル) 소액 단기보험은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였으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 엔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함⁶⁾
-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외에도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함
 - 동경해상도 2015년 가을 임대료 인하 위험을 2년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출시함

■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⁷⁾ 2016년 폐기물 처리, 원상회복, 임대료 보증 보험금 규모는 각각 194,700엔, 253,304엔, 345,000엔으로 나타남

4) 이미에(2013),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일본어문학』, 제63호
 5) 서울경제(2017. 10. 29), “日서 고독사 비율 “전체 사망자의 3.5% 달한다”
 6) 毎日新聞(2016. 5. 17), “高齢者孤独死 販売拡大する「家主向け保険」
 7) 日本少額短期保険協会(2017. 3. 2), “第2回孤独死現状レポート”

- 폐기물 처리 보험금 지급건수는 577건, 원상회복 보험금 지급건수는 961건, 임대료 보증 보험금 지급건수는 25건으로 나타나, 고독사 이후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마땅한 위험 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 또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향후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kiri](#)